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창업활성화 방안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에서 다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창업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문제점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법인의 설립방식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와 과도한 비용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기설립의 경우는 그 절차가 14단계에 이르고, 모집설립은 여기에 주주모집과 모집주주 청약이 추가되어 16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공증, 법인등록세 고지서 발급,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 그리고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에 활용되는 구비서류는 발기설립(법무사 의뢰시) 시 33종류의 48개 서류가, 모집설립(법무사 의뢰시) 시 37종류의 58개 서류가 필요하다. 설립비용도 등기절차 수행방식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에는 그 비용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제도(5000만원 이상)는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위장납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최저자본금 규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불필요한 부대비용(창업자본금 일시 차입을 위한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절차 또한 복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설립 서류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법무사에게 관련서류 작

성을 의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대행 수수료(법무수수료 및 서류 작성료 등)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실태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최근 창업한 6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96.7%가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서류작성 및 절차대행을 의뢰한 반면 3.3%만이 직접 법인설립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업기업은 9.8%에 불과하며, 90.2%가 사채를 일시 차입하여 주금납입에 활용한 후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을 바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등 위장주금납입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금납입을 위해 사채를 빌리는 경우, 응답기업의 90.9%가 법인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2~3일 동안 차입금의 0.5%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개선 및 비용절감 방안

향후 창업촉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구비서류 과다 및 절차 복잡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설립 서류의 표준화 및 수요자 지향적 절차대행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넷'이나 시·군·구의 '창업민원정보망'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서류양식 등을 올려두고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온라인 법인설립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지향적 절차대행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 의해 중소기업상담회사도 법인설립과 관련한 서류작성 및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동법의 주요 지원대상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대행업무만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등기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공증서류 중 몇 가지는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무사 등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중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민원 편의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은 물론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창업민원업무를 상담하고 서류도 인터넷망으로 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에 따른 채권 구입 면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창업 법인기업 증자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